



미래의 주방 가족 공동의 장으로 변모

여성만의 공간에서 탈피, 미래주택의 중심적 역할 담당

부엌이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 집안 구석에 위치하고 단순히 취사만이 가능했던 공간, 더욱이 남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여성만의 공간이었다.

이런 부엌이 세월을 거쳐 이제 주거공간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주거공간의 변천사, 그 가운데 부엌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아파트 건설로 입식형 부엌 대중화

옛날 우리 가옥의 구조를 살펴보면, 부엌은 언제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선조들이 방위와 성(性)을 연관시켜 생각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남쪽은 남성을, 서쪽은 여성의 위치로 생각하여 여성 주거영역인 부엌을 서쪽에 두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또한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고 하며 남자가 부엌에 출입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이는 내외관념이 엄격했던 선조들에게 있어 부엌은 철저한 여성만의 공간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부엌은 가족 모두의 공유 공간이 아닌 주부만의 폐쇄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부엌은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동이나 말이 외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혹독한 시집살이의 설움을 해소하던 며느리들의 애환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로 입식형 부엌 대중화

1960년을 시작으로 아파트는 2천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대표적인 주거형태의 자리를 지켜왔다. 아파트와 함께 우리생활에 도입된 것이 입식형 부엌이다. 그러나 그당시 부엌은 협소하며 방처럼 별도의 문이 있거나 커튼 또는 발로 공간을 구분해 두었고 한옥의 부엌과 마찬가지로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부엌의 형태는 ㄱ자형과 ㄴ자형, 일자형과 반개형일자로 나뉘는데 이러한 형태는 거실과 맞닿아 있는 벽으로 그 형태가 결정된 것이다. 일정한 형태로 구분된 부엌에는 대부분 베란다로 연결된 문이 있고 베란다는 부엌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이용되거나 별도로 연료 도구를 놓아 집안에서 큰 일을 치를 때 부엌의 연장된 기능을 해왔다. 한편 70년대 이후 건설된 대형 아파트는 중앙에 넓은 거실을 배치했다. 이곳에는 TV와 A/V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가족 공동의 장소였다.

그러나 점차 회사일로 늦어지는 아버지와 학교는 물론 2~3군데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거실에 함께 모여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바빠진 어머니를 위해서 식사준비는 식구들 모두 분담을 하게 됐으며 이로써 부엌은 주부만의 공간에서 가족 모

두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립의 공간에서 공동의 공간으로 변화된 부엌은 가족의 취향과 생활양식에 맞는 스타일로 변모되고 빠른 식사준비를 위해서는 수납과 기능이 갖춰진 시스템 부엌 가구들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부엌이 뚜렷히 우리 생활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실례로 연세대 주생활학과 이연숙 교수의 논문을 보면, 호주에서 어린이를 감독하며 친구를 접대하는 등 가족전체를 위한 공간이 부엌으로 제시돼 있다. 주부만의 공간이자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오픈된 다기능을 갖춘 공간이 바로 부엌이라는 얘기다.

주거공간,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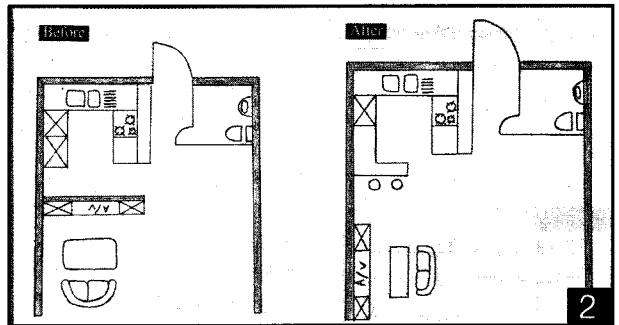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주방전문회사 동양토탈에서 새로운 주거공간인 '리빙홀'을 선보여 부엌 중심의 공간 활용 실례를 제시하였다. 리빙홀은 리빙룸과 비슷한 개념으로 각각의 공간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주거공간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하는 개념이다. 이전의 공간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고 그 공간에서는 한가지 일만 할 수 있는 단편적인 구조였다면 이들이 제안하는 미래의 주거공간은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가정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한 셈이다.

실례로 아일랜드식탁은 싱크대 하나가 주방의 중간에 배치돼 있어 싱크대 안쪽에서는 주부가 가사일을 하며 건너편에 앉아있는 식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이나 거실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부엌에서 바로 보이는 사무공간에는 파티션이 되어 있어 손님이 오거나 조용한 개인업무를 봐야할 경우라면,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한 파티션을 설치해 부엌과 독립된 사무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주부라면 가사일을 하면서 낮은 싱크대 너머 거실에서 놓고 있는 아이를 살필 수도 있다. 개인의 위생공간 이외에 별도의 벽이 없어 한 공간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주거공간은 가족 공동의 공간임을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도 보장되는 다기능적인 주택으로 변모할 것이다. 여기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공간은 바로 주방이다.

1. 아일랜드 스타일의 부엌. 가열대를 부엌 중앙으로 옮겨 싱크대 안쪽에서 가사일을 하며 의자에 앉은 식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2. 왼쪽,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L자형 부엌. 부엌이 벽으로 막혀있어 집안의 다른 공간과 단절되어 있다. 오른쪽, 부엌에 있던 벽을 철거하고 싱크대와 연장선으로 식탁을 두어 거실과 오픈된 공간을 연출한다. 시각적으로 넓어보이며 주방 안에서 가사일을 하며 식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